34

관상동맥 우회술 300례의 임상적 고찰

서울대학교병원 흉부외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
신윤철 · 원태희 · 김기봉 · 안 혁 · 채 헌 · 김종환 · 노준량

관상동맥 협착증은 우리나라에서도 경제발전에 따른 식생활의 변화에 따라 그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관상동맥 우회술의 시행도 많아지는 추세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병원에서 시행한 300례의 관상동맥 우회술의 결과를 분석하여 보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1981년 11월부터 1995년 2월까지 관상동맥 우회술을 시행받은 300례의 협심증 환자를 대상으로 술전진단, 수술방법, 수술사망율, 수술합병증, 술후 증상의 재발과 치료에 대해 알아보았다. 300례중 남자는 187례, 여자는 113례였고 평균 연령은 56.2세 (28~77세)였다. 술전 환자의 평가를 위해 관상동맥 조영술이외에 심전도, 심에코, MIBI scan, 내경동맥과 고동맥에 대한 Duplex sono와 CK, LDH를 포함한 일반적인 혈액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술후 부정맥과 심근경색에 대한 지표로 삼았다. 술전 진단으로 안정성 협심증이 102례 (34.0%), 불안정성 협심증이 162례 (54.0%), 심근 경색후 협심증이 28례 (9.3%), 이형협심증이 7례 (2.3%), 급성 심근경색이 1례 (0.3%)였다. 술전 관상동맥 조영술상 단일 혈관 질환이 48례 (16.0%), 2 혈관질환이 52례 (17.3%), 3 혈관질환이 168례 (56.0%)이었으며 좌 주관상동맥의 협착은 32례 (10.7%)였다. 수술은 내유동맥만 사용한 경우가 13례 (4.3%), 내유동맥과 대복재정맥을 동시에 사용한 경우가 192례 (64.0%), 대복재정맥만 사용한 경우가 88례 (29.3%), 내유동맥외에 다른 동맥 이식편을 사용한 경우가 3례 (1.0%), 관상동맥 성형술만 시행한 경우가 1례 (0.3%) 있었으며 인공판막 대치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가 12례 (4.0%), 내경동맥의 내막절제술을 시행한경우가 2례 (0.7%) 있었다. 수술시간은 대동맥 차단 시간이 평균 86 ± 78분이었고, 환자당 평균 3.1 ± 2.5개의 문합을 시행하였다.

수술사망률은 5.7% (17/300) 이었고 합병증으로서 출혈로 재수술을 시행한 경우가 8례 (2.7%), 종격동염 3례 (1.0%), 수술후 심근경색 18례 (6.0%), 저심박출증 4례 (1.3%), 신경학적 합병증 11례 (3. 7%), 부정맥 48례 (16. 0%), 기타 13례 (4.3%) 있었다. 술후 추적기간은 평균 23.0 ± 37개월 (1개월~13년)이었으며 만기 사망이 1례 있었으며, 증상의 재발로 재수술을 2명의 환자에서 시행하였다.

* 삼성의료원 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